

시마네현으로부터 당부

(연말 상황)

11월부터 전국적인 감염 확대가 시마네현에도 영향을 미쳐, 11월 하순부터 12월 하순에 걸쳐 시마네현에서도 감염자가 증가하여, 12월에는 61명의 감염자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연말연시의 귀성에 따른 감염자 증가가 염려되어, 연말에 시마네현민과 시마네현으로 귀성하는 분들께 귀성을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거나, 연초에 귀성한 가족이 있었던 가정에 가족 이외의 사람과 일정 기간 식사를 삼가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연초 상황)

1월 9일 3연휴부터 2주가 경과하여, 오늘까지 1월의 감염자 수는 45명으로, 현시점에서는 귀성으로 인해 12월보다 감염이 확대되는 사태는 피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매우 가슴 아픈 여러 부탁에 진지하게 협력해 주신 현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음식점 이용의 자숙)

한편, 11월 하순부터 감염자 증가와 1월 7일, 1도 3현의 긴급사태선언 내용이, 음식점 영업시간 단축에 중점을 둔 내용이었기 때문에 시마네현민 여러분의 의식과 행동에도 파급되어 감염이 억제되고 있는 시마네현 내에서도 음식점 이용을 자제하는 경향이 매우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음식점이나 관련 사업자의 경영이 매우 어렵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시마네현은 긴급사태선언 대상 지역과 같은 큰 타격을 받는 상황입니다.

(감염 원인 분석)

시마네현의 11월 하순부터의 감염 사례를 보면, 대부분이 현 외부의 감염자 등과의 접촉과 관련된 것이며, 현시점에서는 현 외부인과 접촉이 없는 시마네현민끼리의 식사 때문에 감염이 발생한 사례는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마네현 외부인과의 접촉이 없는 시마네현민끼리 식사를 할 경우에는, 이것이 감염확대의 원인이 될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음식점 이용 방법)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보면, 일정한 주의 사항을 잘 지키며 음식점을 이용하면 큰 감염 확대를 초래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마네현에서는 감염 위험이 증가하는 「5가지 상황」으로, 집단이나 장시간에 걸친 회식을 주의하도록 요청을 해왔지만, 구체적인 인원과 시간에 대해서는 기준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에, 당분간 식사 시의 인원수는 9명 이하로 해주실 것.

단, 현 외부인과 식사하신 분이나, 현 외부인의 자택에서 숙박하신 분은 2주가 지나기 전까지는 참가를 삼갈 것.

시간은 1시간 30분을 한도로 할 것.

이러한 내용은 향후 감염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재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돗토리현과 생활(통근, 쇼핑 등)권역에 속하는 히로시마현, 야마구치현 지역에 대해서는 현 내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음식점의 철저한 감염 방지 대책)

그리고, 음식점에 종사하시는 여러분께는 시마네현민이 안심하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감염확대 예방 가이드라인」을 확인하신 후, 철저하게 감염방지대책을 지켜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2021년 1월 28일

시마네현 지사 마루야마 다쓰야